

신년사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포덕 156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덕님들의 앞날과 도가에 한울님 감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천도교인으로 만나서 한자리에서 수도하고 덕을 펼치며 후천의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음이야말로 한울님과 스승님의 은덕입니다. 서로에게 지혜와 은혜를 베풀며 서로 감사와 감동을 나누는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충심으로 심고합니다.

지난 해 4월 이후 우리 국민들은 엄혹한 시련 속에서 참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돌아나기 위해서는 낡은 관념과 해묵은 습관을 떨쳐 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세상은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동학 천도교의 진리와 사상을 온몸과 온 마음으로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해월신사께서는 “군자가 환난에 처하면 환난대로 함이 그 도요, 곤궁에 처하면 곤궁대로 함이 그 도니, 우리들이 큰 환난을 지내고

큰 화를 겪은 오늘이라, 마땅히 다시 새로운 도로써 천리의 변화에 순응할 따름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울님과 스승님께 그때 그 자리에서 다짐한 대로 천명사훈(天命師訓)을 잊지 않고 정성과 공경을 다해 나가면, 다가오는 새해 새 봄의 만화방창은 더욱 아름다울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때와 짝하기 위하여, 천도교단은 지난 1년 동안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목소리를 냈으로써, 나라의 장래와 비전을 선도하던 그 시대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되살아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잠자고 있던 개혁군으로서의 천도교인의 기상을 일깨우는 촉매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기운은 한반도 영역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 나아가 유럽 전역에 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도 진전되었습니다. 새해에는 그동안의 노력이 꽃피울 수 있도록 수심정기 하여 한 발 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전국의 천도교인 여러분!

지난 연말에 우리 교단에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랫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3·1운동 100주년 준비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3·1운동 100주년 준비라는 범국가 사업을 천도교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국가가 공인한 일이자,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의 첫 단초가 마련된 의미가 있습니다. 천도교단으로서는 3·1정신을 살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범국가적·범민족적 차원으로 승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지난 해에 시작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과 올해 3·1운동 100주년 준비 사업은 민족의 자주적인 통일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보국안민의 계책을 염려하고 실천하신 스승님과 선열들의 뜻을 계승하는 일이며,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세계평화의 큰 동력을 만들어가는 다시 개벽을 위한 인사(人事)를 다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이제 단순히 갈라진 국토를 잇는다거나 분단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근현대 세계사의 온갖 모순과 질곡이 종합된 현상으로서의 저 휴전선을 걷어 내는 일은, 한편으로는 낡은 시대를 종식하고 새로운 세상, 후천 개벽 세상을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하는 시운시변, 즉 문명사적인 전환을 도모하는 일입니다. 반드시 성취해야 할 통일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그려 내고 이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감당할 철학사상과 정신적 지도력이 요구됩니다. 이것이 또한 지금의 세상이 천도교의 중래(重來)를 기다리는 까닭입니다.

우리 민족 내부의 일로 보더라도 한반도의 통일은 광대한 대륙 국가로서의 통일조국의 미래를 그려 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며, 오랫동안 외세와 외래사상에 얽매어 있던 우리 역사를 명실상부하게

광복하는 일이기도 하며, 시시각각으로 격변하는 경제적 세계지도 상에서 우리의 경제영토와 역량을 확장하는 한편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나아가는 정치경제, 사회문화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는 또한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의 참 의미를 구현함으로써, 의암성사께서 영도하신 3·1운동의 정신으로 미완의 자주독립운동을 완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또한 원만한 지도사상과 철학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일로서, 바로 거기에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 100주년 준비의 중장기 비전이 놓여 있으며, 천도교의 역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남쪽의 천도교와 함께 민족통일을 선도할 주역이 되어야 할 북의 천도교인들과 교류 협력 과정에서 이러한 비전을 충분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천도교인들은 지난 해까지 이룩한 성과를 계승하는 한편, 올해는 3·1운동 기념사업을 매개로 한 본격적인 통일 준비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또 하나의 과업으로는 천도교의 역사·문화적인 자리매김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지금 교단 안팎에서 제기되는 경주 용담 성역화 사업을 위시하여 남원 은적암 복원, 인제 갑둔리 동경대전 간행지비 성역화, 인내천바위 100주년 사업, 중앙대교당 성역화 사업, 전국의 동학농민혁명 사적지 정비와 체계적인 관리, 천도교 성지·유적지 관리의 제도화 문제와, 특히 서소문 역사공원 바로세우기와 같이 천도교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들을

하나하나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뜻과 희망은 원대하게 갖되 그 실행은 낮고 작은 데서부터 챙기는 마음가짐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적을 복원·성역화 하는 일이 아니라 시대정신으로서, 다시 개벽의 문화적 토대로서의 동학 천도교의 위상을 역사와 민족, 나아가 인류사회와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올 한 해, 이를 위한 교단 내부의 준비와 실행을 제도적으로, 실천적으로 충실히 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내용적으로 재조명해 보면, 생명문화운동, 어린이운동, 나눔과 모심의 자원봉사 본격화, 섬김의 복지사업, 장학사업의 전개 등입니다. 이들 모두는 천도교단이, 그리고 천도교인들이 한울님과 스승님의 은덕과 가르침에 보답하는 과정으로서 전개되어 갈 사업입니다.

숙덕 원로, 동덕 여러분!

산하대운이 진귀차도하는 이때야말로 지금 여기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세파의 거칠음은 잣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죽임’의 소식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들려옵니다. 선천의 관념을 떨쳐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위심하며 상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헤쳐 나가는 것이 이 시대 천도교인들의 과업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한울님으로부터 비롯된 한 동포요, 온 세상 사람은 한울님을 모신 한 가족이라는 동귀일체의 생명사상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한 해가 되도록

록 믿음을 단련해 나가야겠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할 때, 중도를 잡는 길은 단순함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스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입춘도 다 지난 후의 꽃샘추위가 더욱 추운 법이며, 가장 어두운 때야말로 새벽이 머지않은 법입니다. 눈앞의 과업이 아홉 길 산처럼 높아 보일 때, 오히려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내 모신 한울님을 믿고 의지하여 한 소쿠리 정성을 다하는 것만이 유일한 활로일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고기잡이를 떠나는 어부의 심정이 되어 헤진 그물을 손질하는 인사 또한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본이 바로 선 교단, 소통하는 교단, 미래를 준비하는 교단이라는 것이 이 시대 천도교 중앙총부의 초심이라면, 올 한 해는 교구와 연원을 기축으로 하는 제도를 공명정대한 기반 위에 바로 세우고, 교단 내의 소통문화와 더불어 세상과도 소통하는 천도교 문화를 제도화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가야 하겠습니다.

남과 북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합니다. 올해를 통일원년으로 만들어 내는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정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라도, 나아가 세계 평

화와 인류 미래를 위해서라도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씩 더 앞으로 다가서서 손을 맞잡아 주십시오. 통일조국의 과실은 말의 성찬을 넘어 역지사지하고 양보하는 결단으로서만 다가설 수 있는 성역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지도자들께도 고합니다.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남과 북의 화해 정신을 고양하고, 그에 앞서 남남 갈등을 대승적으로 치유해 나가는 데 신명을 다해 나갑시다. 세상인심이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두려움에 쫓여 있는 것이 지금의 형편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나’를 둘러싼 ‘우리’를 알게 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한국인의 본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교화하고 실천해 나갑시다.

남과 북의 동포 여러분! 우리는 시련을 통하여 단련되어 온 민족입니다. 하나의 고비를 지혜롭게 이겨 나가면, 그 너머에 반드시 평화의 땅, 상생의 시대가 펼쳐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갖고 인내하며 정을 나누며 다가올 새 시대를 맞이합시다.

새 하늘 새 땅에 사람과 만물이 더불어 새로워지는 시대, 새 아침입니다. 가정과 사회, 국가에 안녕과 웃음이 넘치기를 기원하면서 신년사를 마칩니다.

포덕 156(2015)년 1월 1일

교령 박 남 수 心告

제17장 공 락 가

1. 천 도교 의 한 울 북-에 소 리 소 리 울 리-니
 2. 천 도교 의 성 주 소-리 세 간 악 마 도 망 하 니
 3. 천 도교 의 거 록 한-덕 널 리 널 리 퍼 - - 니
 4. 천 도교 의 화 한 바-람 온 누 리 에 부 - - 니

1. 깊 은 밤 에 잠 - 든 세 계 놀 - 라 깨 도 다
 2. 승 전 고 틀 울 리는 곳 에 궁 을 기 날 도 다
 3. 함 포 고 복 우 - 리 인 류 서 로 노래 하 세
 4. 화 홍 초 록 봄 - 언 덕 에 온 갖 새 부르 짓 네

후렴

든 도 보 도 못 - 한 이 - 품 류 에

한 울 나 라 한 울 백 성 같 이 즐 기 세